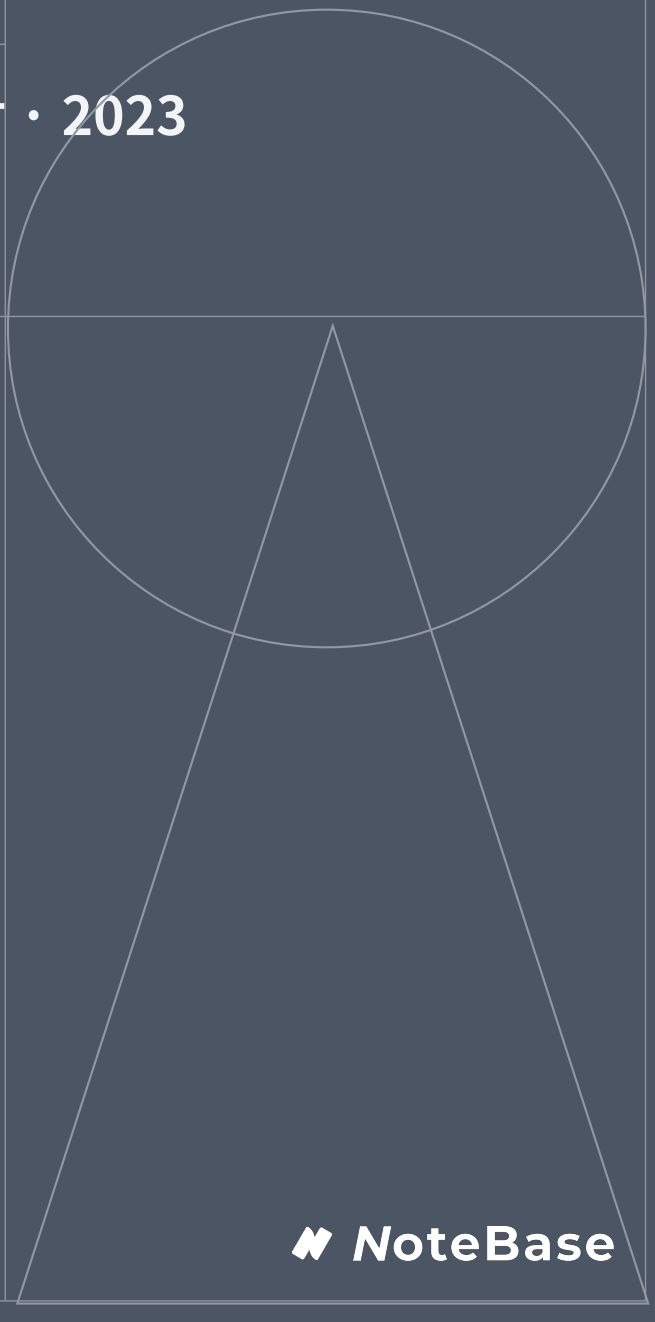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회계학 · 2023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회계학 · 2023

공무원/국가직/9급 · 회계학 · 2023

문 1.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건물을 ₩110에 취득하였다. 건물의 잔존가치는 ₩10이며, 내용연수는 10년이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기로 하였다. 해당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가상각대상금액 ₩110이 내용연수 10년에 걸쳐 배분된다.

② 20×1년에 인식되는 감가상각비는 ₩10이다.

③ 20×2년 말 해당 건물의 감가상각누계액은 ₩20으로 보고된다.

④ 20×3년 말 해당 건물의 장부금액은 ₩80으로 보고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감가상각대상금액은 취득원가 전액이 아니라 **잔존가치를 뺀 금액**이다. 따라서 10년에 걸쳐 배분할 금액은 ₩110 - ₩10 = ₩100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감가상각은 자산의 취득원가 중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이 건물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은 **₩110 - ₩10 = ₩100**이므로, ₩110이 아니라 ₩100을 10년에 걸쳐 배분한다.

② O: 정액법은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매년 같은 금액**으로 배분한다. 연간 감가상각비는 $\frac{110-10}{10}=10$이므로 ₩10이다. 20×1년 1월 1일에 취득하였으므로 20×1년에는 1년분인 ₩10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③ O: 감가상각누계액은 취득 후 해당 시점까지 인식한 **감가상각비의 누적액**이다. 20×2년 말에는 20×1년과 20×2년의 감가상각비가 누적되므로 ₩10 × 2년 = ₩20으로 보고된다.

④ O: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20×3년 말에는 3년분 감가상각비 ₩10 × 3년 = ₩30이 누적되므로, 장부금액은 **₩110 - ₩30 = ₩80**으로 보고된다.

NoteBase

문 2. 다음은 (주)한국의 20×1년도 자기주식과 관련된 거래이다. 자본 총계가 증가하는 거래만을 모두 고르면?

ㄱ. 자기주식 1,000주를 주당 ₩700에 취득하였다.
ㄴ. 자기주식 200주를 주당 ₩800에 재발행하였다.
ㄷ. 자기주식 300주를 소각하였다.
ㄹ. 자기주식 500주를 주당 ₩600에 재발행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자기주식은 취득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발행하더라도 **유입된 현금만큼 자본 총계가 증가**한다. 취득원가와 재발행가액의 차이는 손익이 아니라 자본 항목 안에서 조정한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자본 총계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다. 자기주식의 취득·재발행·소각은 주주와의 자본거래로, 그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ㄱ. 자본 총계 감소: 자기주식은 자산이 아니라 **자본에서 차감하는 항목**이다. 1,000주 × 700원 = 700,000원의 현금을 지급하여 취득하면 자기주식 차감액이 늘어나므로 자본 총계가 700,000원 감소한다.

ㄴ. 자본 총계 증가: 200주의 취득원가는 200주 × 700원 = 140,000원이고, 재발행으로 받은 현금은 200주 × 800원 = 160,000원이다. 자기주식 차감액 140,000원이 없어지고 취득원가 초과액 20,000원은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자본에 가산된다. 따라서 자본 총계는 **현금 유입액인 160,000원**만큼 증가한다.

ㄷ. 자본 총계 불변: 소각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원가는 300주 × 700원 = 210,000원이다. 자기주식 차감액이 없어지는 만큼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등 다른 자본 항목이 순감소한다. 소각은 **자본 내부의 조정**이며 현금 등 자산의 유출입이 없으므로 자본 총계는 변하지 않는다.

ㄹ. 자본 총계 증가: 500주의 취득원가는 500주 × 700원 = 350,000원이고, 재발행으로 받은 현금은 500주 × 600원 = 300,000원이다. 자기주식 차감액 350,000원이 없어지는 대신 취득원가 미달액 50,000원이 다른 자본 항목에서 차감된다. 따라서 자본 총계는 350,000원 − 50,000원 = 300,000원 증가한다. **취득원가 미달액이 발생해도** 재발행으로 자본 총계는 증가한다.

자본 총계가 증가하는 거래는 ㄴ과 ㄹ이므로 ③의 조합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3. (주)한국이 20×1년 초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건물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이 해당 건물에 대하여 원가모형과 공정가치모형을 각각 적용하였을 경우, 20×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취득원가: ₩50,000 ◯ 내용연수: 5년
◯ 잔존가치: ₩0 ◯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 20×1년 말 공정가치: ₩60,000

① 원가모형: ₩ 0, 공정가치모형: ₩ 0
② 원가모형: ₩ 10,000 감소, 공정가치모형: ₩ 20,000 증가
③ 원가모형: ₩ 10,000 감소, 공정가치모형: ₩ 10,000 증가
④ 원가모형: ₩ 20,000 증가, 공정가치모형: ₩ 20,000 감소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원가모형에서는 연간 감가상각비 10,000원이 비용으로 인식되어 당기순이익이 감소한다. 공정가치모형에서는 **감가상각하지 않고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므로, 취득원가보다 오른 10,000원만큼 당기순이익이 증가한다.

계산 과정

원가모형: 건물의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등을 차감하여 장부금액을 산정한다.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균등하게 비용으로 배분하는 방법이다. 20×1년 초 취득하였으므로 1년분 감가상각비는 $\frac{50,000-0}{5}=10,000$원이다. 이 감가상각비로 당기순이익은 10,000원 감소하고, 연말 장부금액은 50,000 − 10,000 = 40,000원이 된다. 연말 공정가치가 60,000원으로 상승해도 원가모형에서는 **그 상승분을 평가이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공정가치모형: 투자부동산을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변동액을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이 모형에서는 **감가상각을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평가 전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인 50,000원이다. 연말 공정가치 60,000원과의 차액인 60,000 − 50,000 = 10,000원을 평가이익으로 인식하여 당기순이익이 10,000원 증가한다. 원가모형의 감가상각 후 금액인 40,000원을 기준으로 평가이익을 계산하지 않는다.

원가모형의 당기순이익 10,000원 감소와 공정가치모형의 당기순이익 10,000원 증가를 연결한 ③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4.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액면금액이 ₩1,000,000인 사채(액면이자율 8%, 만기 3년)를 ₩950,263에 발행하였다. (주)한국이 발행한 사채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액면이자는 매년 말 지급하고, 원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한다)

① 사채발행 시 액면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낮다.

② 매년 인식해야 할 이자비용은 증가한다.

③ 만기까지 인식해야 할 이자비용의 총액은 ₩240,000이다.

④ 이자비용으로 지출하는 현금은 매년 ₩80,000으로 일정하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③의 240,000원은 3년간 지급하는 현금이자의 합계이다. 할인발행한 사채는 **발행할인액 49,737원도 이자비용에 포함**하므로, 만기까지 인식할 이자비용 총액은 289,737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발행금액 950,263원이 액면금액 1,000,000원보다 작으므로 할인발행한 사채이다. 액면이자율 8%로 지급하는 이자만으로는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을 충족하지 못하여 발행가격이 액면금액보다 낮아진 것이다. 따라서 발행 시 **액면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낮다**.

② O: 유효이자율법에서는 매년 초 사채 장부금액에 발행 시의 유효이자율을 곱하여 이자비용을 계산한다. 할인발행 사채는 이자비용이 현금이자보다 크고, 그 차이인 할인액 상각액만큼 사채 장부금액이 증가한다. 따라서 **증가한 장부금액에 같은 유효이자율을 적용**하므로 매년 이자비용이 증가한다.

③ X: 매년 지급하는 현금이자는 1,000,000원 × 8% = 80,000원이므로, 3년간 현금이자 합계는 80,000원 × 3년 = 240,000원이다. 여기에 발행할인액 1,000,000원 − 950,263원 = 49,737원을 더해야 한다. 이 할인액은 발행 시 받은 금액보다 만기에 더 상환하는 금액으로, 사채 존속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만기까지 인식할 이자비용 총액은 240,000원 + 49,737원 = **289,737원**이다.

④ O: 매년 현금으로 지급하는 액면이자는 **액면금액에 액면이자율을 곱한 금액**이다. 액면금액 1,000,000원과 액면이자율 8%가 변하지 않으므로, 매년 말 지급하는 현금이자는 80,000원으로 일정하다. 할인액 상각으로 이자비용이 증가하더라도 현금이자 지급액은 달라지지 않는다.

NoteBase

문 5. (주)한국은 평균법을 적용한 종합원가계산으로 제품원가를 계산하고 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한 (주)한국의 기말재공품 수량은?

◯ 기말재공품의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 ₩200
◯ 기말재공품의 생산 완성도: 60%
◯ 기말재공품의 가공원가: ₩60,000
◯ 가공원가는 생산 완성도에 따라 균등하게 투입되고 있음
◯ 기초재공품과 공손 및 감손은 없음

① 300개
② 400개
③ 500개
④ 600개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기말재공품의 가공원가를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로 나누면 **가공원가 기준 완성품환산량**은 300개이다. 이는 실제 수량의 60%이므로, 기말재공품 수량은 500개이다.

계산 과정

완성품환산량은 미완성 재공품에 투입된 작업량을 완성품 수량으로 환산한 것이다. 가공원가가 생산 완성도에 따라 균등하게 투입되므로, **가공원가 기준 완성품환산량은 실제 수량에 완성도를 곱하여** 구한다. 기초재공품과 공손 및 감손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별도 조정은 필요하지 않다.

기말재공품의 완성품환산량: 가공원가 60,000원을 완성품환산량 1개당 원가 200원으로 나누면, 기말재공품에 투입된 가공원가가 완성품 몇 개분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다. $\frac{60,000}{200} = 300$개이다. 이 300개는 **실제 재공품 수량이 아니라 완성품 100% 기준으로 환산한 수량**이다.

기말재공품의 실제 수량: 완성도 60%인 재공품 1개는 완성품환산량 0.6개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제 수량은 완성품환산량을 완성도로 나누어 구한다. $\frac{300}{0.6} = 500$개이다.

기말재공품 수량은 500개이므로 ③의 수량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6. 20x1년도에 설립된 (주)한국은 개별원가계산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20x1년도 제품 생산과 관련된 정보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이 직접노무원가의 140%를 제조간접원가에 배부할 경우 C제품 생산에 투입된 직접노무원가는?

구분	A 제품	B 제품	C 제품
제품 관련 정보	생산 완료 및 판매	생산 미완료	생산 완료 및 미판매
제조원가 대비 가공원가 비율	60 %	40 %	40 %
당기총제조원가	₩ 240,000		
당기제품제조원가	₩ 180,000		
매출원가	₩ 60,000		

① ₩ 16,000

② ₩ 20,000

③ ₩ 24,000

④ ₩ 28,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C제품의 제조원가는 완성된 제품의 원가 180,000원에서 판매된 A제품의 원가 60,000원을 뺀 120,000원이다. 이 중 가공원가 48,000원은 **직접노무원가와 그 140%인 제조간접원가의 합계**이므로, 직접노무원가는 20,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C제품의 제조원가: 20x1년도에 설립되었으므로 기초재공품과 기초제품은 없다. 당기제품제조원가 180,000원은 생산이 완료된 A제품과 C제품의 제조원가 합계이다. 이 중 판매된 것은 A제품뿐이므로 매출원가 60,000원이 A제품의 제조원가이다. 따라서 **완성되었지만 판매되지 않은 C제품**의 제조원가는 180,000 − 60,000 = 120,000원이다. 생산이 미완료된 B제품의 원가는 당기제품제조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2. C제품의 가공원가: 가공원가는 **직접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의 합계**이다. 표에서 C제품의 제조원가 대비 가공원가 비율은 40%이므로, C제품의 가공원가는 120,000 × 40% = 48,000원이다.

3. C제품의 직접노무원가: 직접노무원가를 x원이라 하면 제조간접원가 배부액은 $1.4x$원이다. 따라서 가공원가는 $x + 1.4x = 2.4x$이고, $2.4x = 48{,}000$이 성립한다. 이를 풀면 $x = \frac{48{,}000}{2.4} = 20{,}000$이다. C제품의 직접노무원가는 20,000원으로, ②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7. (주)한국은 20×1년 7월 1일 기계장치(정액법 상각, 내용연수 3년, 잔존가치 ₩0)를 ₩36,000에 취득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주)한국이 20×2년 말에 인식해야 할 손상차손환입액은? (단, 자산의 회수가능액 변동은 기계장치의 손상 혹은 그 회복에 따른 것이라고 가정하며, 감가상각은 월할 계산한다)

구 분	20×1년 말	20×2년 말
순공정가치	₩ 25,000	₩ 17,000
사용가치	₩ 24,000	₩ 19,000

① ₩ 2,000

② ₩ 3,000

③ ₩ 4,000

④ ₩ 5,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손상차손환입 후 장부금액은 **손상차손이 없었을 경우의 장부금액**을 넘을 수 없다. 20×2년 말에는 회수가능액 19,000원보다 낮은 한도 18,000원까지만 회복하므로, 환입 전 장부금액 15,000원과의 차이인 3,000원을 환입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20×1년 말 손상차손: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다. 표의 20×1년 말 회수가능액은 25,000원이다. 취득일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의 감가상각비는 $\frac{36,000}{36} \cdot 6 = 6,000$원이고, 손상 전 장부금액은 36,000 − 6,000 = 30,000원이다. 따라서 30,000 − 25,000 = 5,000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여 장부금액을 25,000원으로 낮춘다.

2. 20×2년 말 환입 전 장부금액: 손상차손 인식 후에는 **낮아진 장부금액을 남은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한다. 20×1년 말 남은 내용연수는 36 − 6 = 30개월이므로, 20×2년 감가상각비는 $\frac{25,000}{30} \cdot 12 = 10,000$원이다. 이에 따라 환입 전 장부금액은 25,000 − 10,000 = 15,000원이다.

3. 환입 후 장부금액의 한도: 표의 20×2년 말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 17,000원과 사용가치 19,000원 중 큰 19,000원이다. 다만 환입 후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남았을 장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손상이 없었다면 취득 후 18개월간의 감가상각누계액은 $\frac{36,000}{36} \cdot 18 = 18,000$원이므로, 그때의 장부금액은 36,000 − 18,000 = 18,000원이다. 따라서 회수가능액이 19,000원이더라도 장부금액은 18,000원까지만 회복할 수 있다.

4. 손상차손환입액: 환입 후 허용되는 장부금액 18,000원에서 환입 전 장부금액 15,000원을 뺀 18,000 − 15,000 = 3,000원이다. 이는 ②의 3,000원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8.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우발부채를 재무제표에 인식한다.

②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 충당부채를 생기게 한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한다.

③ 수익의 실현이 거의 확실하다면, 관련 자산은 우발자산이 아니므로 해당 자산을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④ 손실부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현재의무를 우발부채로 인식하고 측정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수익의 실현이 **거의 확실**해지면 관련 자산은 더 이상 우발자산이 아니므로 재무제표에 인식한다. 단순히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은 경우와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우발부채는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는다. 자원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는 조건은 **인식이 아니라 주석 공시**의 기준이다. 과거사건으로 생긴 현재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으며, 의무 이행에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면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② X: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생기게 한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더라도 **충당부채 측정에 고려하지 않는다**. 의무 이행에 필요한 금액에서 예상 처분이익을 차감해서는 안 되며, 자산 처분이익은 해당 자산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별도로 인식한다.

③ O: 우발자산은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 그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자산이다. 수익의 실현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는 더 이상 우발자산으로 보지 않으므로 관련 자산을 재무제표에 인식한다.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지만 거의 확실하지는 않은 우발자산은 인식하지 않고 주석에 공시한다.

④ X: 손실부담계약은 계약상 의무 이행에 드는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계약으로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이다.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현재의무는 **우발부채가 아니라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측정한다. 계약상 부담해야 할 손실이 현재의무를 구성하므로 단순히 주석에 공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NoteBase

문 9. 다음은 (주)한국의 20×1년 상품과 관련된 자료이다. (주)한국이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경우, 20×1년 기말재고자산 금액은? (단, 재고자산에 대한 감모 및 평가손실은 발생하지 않았다)

◯ 기초상품재고액은 ₩5,000(개당 취득원가 ₩500)이다.
◯ 기중에 상품 100개(개당 매입가격 ₩500)를 매입하였으며, 매입운임으로 개당 ₩50이 지출되었다.
◯ 기중에 매입한 상품 중 하자가 있어 개당 ₩50의 할인(매입에누리)을 받았다.
◯ 기중에 상품 50개를 판매하였다.

① ₩25,000
② ₩30,000
③ ₩35,000
④ ₩40,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매입운임은 취득원가에 더하고 매입에누리는 빼므로, 기중 매입상품의 **개당 취득원가는 500원**이다.
선입선출법에 따라 기말에 남는 기중 매입상품 60개를 이 단가로 평가하면 기말재고자산은 30,000원이다.

계산 과정

1. 기중 매입상품의 취득원가: 상품을 매입하여 현재의 장소에 이르게 하는 매입운임은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하자로 받은 **매입에누리는 매입가격에서 차감**한다. 따라서 개당 취득원가는 500 + 50 − 50 = 500원이다.

2. 기말재고수량: 기초상품 수량은 $\frac{5,000}{500}$ = 10개이다. 기중에 100개를 매입하고 50개를 판매했으며 감모가 없으므로, 기말재고수량은 10 + 100 − 50 = 60개이다.

3. 선입선출법의 적용: 선입선출법은 **먼저 취득한 상품의 원가부터 매출원가로 배분**하는 방법이다. 판매한 50개에는 기초상품 10개와 기중 매입상품 40개의 원가가 배분되므로, 기말에는 기중 매입상품 60개가 남는다.

4. 기말재고자산 금액: 남은 60개에 기중 매입상품의 개당 취득원가 500원을 적용하면 60 × 500 = 30,000원이다. 평가손실도 없으므로 추가 차감은 없으며, 이는 ②의 30,000원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0. 현금흐름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금흐름표는 일정시점의 현금유입액과 현금유출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이다.

② 현금흐름표상의 현금흐름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분류된다.

③ 현금흐름표는 다른 재무제표와 같이 사용되는 경우 순자산의 변화, 재무구조(유동성과 지급능력 포함), 그리고 변화하는 상황과 기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를 조절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④ 역사적 현금흐름정보는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확실성에 대한 지표로 자주 사용된다. 또한 과거에 추정한 미래현금흐름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수익성과 순현금흐름 간의 관계 및 물가변동의 영향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①의 '일정시점'은 **'일정기간'**으로 고쳐야 한다. 현금흐름표는 한 기간 동안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얼마나 유입되고 유출되었는지를 보여 준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현금흐름표는 **일정기간 동안**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유입과 유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1년간의 현금 수입과 지출은 기간에 걸친 흐름이다. 일정시점에 보유한 현금 잔액을 보여 주는 재무상태표와 구별해야 하므로, 선지의 '일정시점'을 '일정기간'으로 고친다.

② O: 현금흐름은 **영업활동·투자활동·재무활동**으로 분류한다. 영업활동은 주요 수익창출활동과 투자·재무활동에 속하지 않는 기타 활동이며, 상품 판매대금의 회수가 그 예이다. 투자활동은 장기성 자산과 현금성자산에 속하지 않는 기타 투자자산의 취득·처분으로, 기계 구입 등이 해당한다. 재무활동은 자본과 차입금의 규모·구성에 변동을 가져오는 활동으로, 주식 발행과 차입금 상환 등이 해당한다.

③ O: 현금흐름표를 **다른 재무제표와 함께** 사용하면 순자산의 변화와 재무구조를 평가할 수 있다. 자산·부채의 잔액 정보에 실제 현금 유입·유출 정보를 연결하면, 지급의무를 이행할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와 상황 변화에 맞추어 현금흐름의 금액·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유동성과 지급능력의 평가에도 유용하다.

④ O: 역사적 현금흐름정보는 과거에 실제로 발생한 현금흐름에 관한 정보로, 미래현금흐름의 금액·시기·확실성을 예상하는 지표가 된다. **과거의 예측과 실제 현금흐름을 비교**하면 당시 추정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다. 또한 발생주의에 따른 수익성과 실제 순현금흐름 사이의 관계 및 물가변동의 영향을 분석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NoteBase

문 11.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표현충실성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 시 절차상 오류가 없음을 의미한다.

② 비교가능성은 통일성이 아니다. 정보가 비교가능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것은 비슷하게 보여야 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보여야 한다.

③ 보강적 질적특성은 가능한 한 극대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강적 질적특성은 정보가 목적적합하지 않거나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그 정보를 유용하게 할 수 없다.

④ 하나의 경제적 현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충실하게 표현될 수 있어 동일한 경제적 현상에 대해 대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을 허용하면 비교가능성이 증가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비교가능성이 증가한다'는 **'비교가능성이 감소한다'**로 고쳐야 한다. 같은 경제적 현상에 서로 다른 회계처리방법을 허용하면, 보고된 차이가 경제적 실질의 차이인지 회계처리방법의 차이인지 구별하기 어려워진다.

선지별 해설

① O: 표현충실성은 경제적 현상을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 없이 나타내는 특성이다. 여기서 **오류가 없다는 것은 모든 금액이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뜻은 아니다**.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정보를 산출하는 절차를 오류 없이 선택·적용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추정금액도 추정치임을 명확히 밝히고 추정절차의 성격과 한계를 설명하며 적절한 절차를 오류 없이 적용했다면 충실한 표현이 될 수 있다.

② O: 비교가능성은 정보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특성이다. 따라서 **비슷한 것은 비슷하게, 다른 것은 다르게** 나타내야 한다. 경제적 실질이 다른 항목까지 무조건 똑같이 표시하는 통일성은 오히려 차이를 가리므로 비교가능성과 구별된다.

③ O: 비교가능성·검증가능성·적시성·이해가능성은 보강적 질적특성이며 가능한 한 극대화해야 한다. 다만 이들은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을 갖춘 정보의 유용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의사결정과 관련이 없거나 경제적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정보는 보강적 특성을 하나 또는 여러 개 갖추더라도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없다.

④ X: 하나의 경제적 현상을 여러 방법으로 충실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앞부분은 타당하다. 그러나 동일한 현상에 대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을 허용하면 **비교가능성이 감소한다**. 기업 간 또는 기간 간에 나타난 금액 차이가 실제 경제적 차이에서 비롯되었는지, 적용한 회계처리방법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가한다'를 '감소한다'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12. 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당기총제조원가는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를 합계한 금액이다.

② 당기제품제조원가는 당기총제조원가에 기초재공품재고액을 더하고 기말재공품재고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③ 기업은 의사결정 시 기회원가와 매몰원가를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④ 변동원가는 조업도 또는 활동수준에 따라 변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③의 기회원가와 매몰원가는 의사결정에서 다르게 취급한다. 다른 대안을 선택하지 못해 포기하는 이익인 **기회원가는 고려**하지만, 이미 발생하여 현재 선택으로 바꿀 수 없는 **매몰원가는 제외**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당기총제조원가는 **당기에 제품 생산을 위해 투입한 제조원가의 합계**이다. 제품에 직접 추적할 수 있는 재료원가와 노무원가인 직접재료원가·직접노무원가에, 공장 감가상각비처럼 제품에 직접 추적하기 어려운 제조간접원가를 더한다.

② O: 재공품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제품이다. 기초재공품재고액은 전기에서 넘어온 미완성품의 원가이므로 당기총제조원가에 더하고, 기말재공품재고액은 당기 말에도 미완성 상태로 남아 있는 원가이므로 뺀다. 이렇게 계산한 당기제품제조원가는 **당기에 완성되어 제품으로 대체된 원가**이다.

③ X: 기회원가는 한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하는 다른 대안 중 최선의 이익으로, **의사결정 시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유 건물을 직접 사용하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받을 수 있었던 임대수익을 포기하므로 이를 기회원가로 고려한다. 반면 매몰원가는 이미 발생하여 현재의 선택으로 바꿀 수 없는 원가이므로, 대안 간 비교에서 제외한다.

④ O: 변동원가는 조업도나 활동수준이 변하면 **총액이 그에 따라 변하는 원가**이다. 통상 관련범위 안에서는 단위당 변동원가가 일정하므로 생산량이 증가하면 총변동원가도 비례하여 증가한다. 따라서 변하는 것은 원가의 총액이며, 단위당 원가가 반드시 증가한다는 뜻은 아니다.

NoteBase

문 13. (주)한국은 새로운 경전철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1회 이용당 변동원가는 ₩100이고, 1년간 경전철 운영의 고정원가는 ₩100,000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1년간 이용 횟수가 1,000회로 예상된다. (주)한국이 목표이익을 ₩100,000으로 정할 경우 책정되어야 할 1회 이용요금은?

① ₩300

② ₩500

③ ₩700

④ ₩9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요금에서 1회당 변동원가를 뺀 금액으로 **고정원가와 목표이익을 모두 충당**해야 한다. 필요한 1회당 공헌이익은 200원이므로 이용요금은 100 + 200 = 300원이다.

계산 과정

1. 필요한 연간 공헌이익: 공헌이익은 매출액에서 변동원가를 뺀 금액이며, 여기서 고정원가를 차감하면 이익이 된다. 따라서 목표이익을 얻으려면 연간 공헌이익이 **고정원가와 목표이익의 합**인 100,000 + 100,000 = 200,000원이어야 한다.

2. 1회당 필요한 공헌이익: 예상 이용 횟수는 향후 1년간 1,000회이다. 필요한 연간 공헌이익을 같은 기간의 이용 횟수로 나누면, 1회당 공헌이익은 $\frac{200,000}{1,000}$ = 200원이다. 이는 1회 요금에서 변동원가를 제외하고 고정원가 회수와 목표이익 확보에 기여해야 하는 금액이다.

3. 1회 이용요금: 이용할 때마다 발생하는 변동원가 100원에 필요한 공헌이익 200원을 더한다. 따라서 1회 이용요금은 100 + 200 = 300원으로, ①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4.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비교환수익 유형에 따른 수익인식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천징수하는 국세: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세액을 원천징수할 때 수익으로 인식
②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의 국세: 국가가 고지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
③ 분납이 가능한 국세: 징수할 세금이 확정된 때에 그 납부할 세액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
④ 부담금수익: 청구권 등이 확정된 때에 그 확정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

정답 1번

①

원천징수 국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납부할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납세의무자로부터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시점에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수익의 인식기준)
② 비교환수익은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하며, 수익 유형에 따른 세부 인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27, 2021.10.28>
3. 원천징수하는 국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 · 납부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

②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의 국세는 **국가가 세액을 고지할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수익의 인식기준)
② 비교환수익은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하며, 수익 유형에 따른 세부 인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27, 2021.10.28>
2.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의 국세: 국가가 고지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

③

분납이 가능한 국세도 **징수할 세금이 확정된 때 납부할 세액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한다. 분납할 때마다 수익을 나누어 인식하지 않는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수익의 인식기준)
② 비교환수익은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하며, 수익 유형에 따른 세부 인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27, 2021.10.28>
4. 연부연납(세금 신고기한 경과 후 장기간 분할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분납이 가능한 국세: 징수할 세금이 확정된 때에 그 납부할 세액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

NoteBase

④

부담금수익은 **청구권 등이 확정된 때** 그 확정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수익의 인식기준)
② 비교환수익은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하며, 수익 유형에 따른 세부 인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27, 2021.10.28>
5. 부담금수익, 기부금수익, 무상이전수입, 제재금수익 등: 청구권 등이 확정된 때에 그 확정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 다만, 제재금수익 중 벌금, 과료, 범칙금 또는 몰수품으로서 청구권이 확정된 때나 몰수품을 몰수한 때에 그 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벌금, 과료 또는 범칙금이 납부되거나 몰수품이 처분된 때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NoteBase

문 15.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 중 관리·유지 노력에 따라 취득 당시의 용역 잠재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감가상각하지 아니하고 관리·유지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감가상각비용을 대체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무형자산은 정액법에 따라 당해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 동안 상각한다. 다만,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넘을 수 없다.

④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정부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할 자산으로서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교육적 및 예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자산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정답 4번

①

관리·유지를 통해 취득 당시의 용역 잠재력이 유지되는 사회기반시설은 **감가상각 대신 관리·유지 비용을 인식할 수 있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으로 같은 수준의 용역 잠재력이 유지됨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회기반시설의 평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기반시설 중 관리 · 유지 노력에 따라 취득 당시의 용역 잠재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감가상각하지 아니하고 관리 · 유지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감가상각비용을 대체할 수 있다. 다만,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사회기반시설의 용역 잠재력이 취득 당시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의 여섯 범주로 분류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자산의 분류)
①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NoteBase

③

무형자산은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정액법으로 상각**하며, 합리적인 상각기간은 원칙적으로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무형자산의 평가)
②무형자산은 정액법에 따라 당해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동안 상각한다. 다만, 독점적 ·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넘을 수 없다.

④

정부가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영구히 보존해야 할 역사적·자연적·문화적·교육적·예술적 가치의 자산은 **유산자산**이다.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종류와 현황 등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자산의 인식기준)
②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정부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할 자산으로서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교육적 및 예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자산(이하 "유산자산"이라 한다)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 종류와 현황 등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개정 2024.7.31>

NoteBase

문 16. 다음은 상품매매기업인 (주)한국의 재고자산에 대한 자료이다. 실지 재고조사법에 따른 결산수정분개로 옳은 것은?

◯ 기초상품재고액: ₩1,000 ◯ 당기상품매입액: ₩6,000
◯ 기말상품재고액: ₩2,000

① (차): 상품 ₩2,000, (대): 매입 ₩7,000
(차): 매출원가 ₩5,000

② (차): 매입 ₩5,000, (대): 매출원가 ₩5,000

③ (차): 매입 ₩6,000, (대): 매출원가 ₩7,000
(차): 상품 ₩1,000

④ (차): 상품 ₩2,000, (대): 상품 ₩1,000
(차): 매출원가 ₩5,000, (대): 매입 ₩6,00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실지 재고조사법에서는 **기초상품과 당기매입을 매출원가로 대체**하고, 기말에 남은 상품은 자산으로 남긴다. 매출원가는 1,000 + 6,000 − 2,000 = 5,000원이며, 상품 계정에는 기말재고 2,000원이 남아야 한다.

핵심 풀이

실지 재고조사법에서는 상품을 매입할 때 매입 계정에 기록하고, 판매할 때마다 상품과 매출원가를 조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결산 전 상품 계정에는 **기초재고 1,000원**이 남아 있고, 매입 계정에는 당기매입 6,000원이 기록되어 있다.

매출원가: 기초재고와 당기매입을 합한 1,000 + 6,000 = 7,000원은 당기에 판매할 수 있었던 상품의 원가이다. 이 중 **기말에 남은 2,000원은 자산**이므로 비용에서 제외한다. 매출원가는 7,000 − 2,000 = 5,000원이다.

결산수정분개: 기존 상품 잔액 1,000원을 대변에 기록하여 제거하고, 당기매입 6,000원도 대변에 기록하여 매입 계정을 정리한다. 차변에는 기말상품 2,000원과 매출원가 5,000원을 기록한다. **상품의 차변 2,000원은 기말재고 설정, 대변 1,000원은 기초재고 제거**라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한다.

이를 하나의 분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으며, ④의 분개와 일치한다.
(차) 상품 2,000원, 매출원가 5,000원
(대) 상품 1,000원, 매입 6,000원

NoteBase

문 17. (주)한국의 수정전시산표상 수익총액은 ₩800,000이며 비용총액은 ₩500,000이다. 다음의 결산수정사항을 반영할 경우, (주)한국의 당기순이익은?

◯ 당해연도에 이자수익 ₩60,000이 발생하였으나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다.
◯ 당해연도에 발생한 급여 ₩80,000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다.
◯ 보험료 ₩120,000을 지급하면서 전액 자산으로 인식하였으나 이 중 다음연도에 해당하는 금액은 ₩90,000이다.
◯ 임대료 ₩240,000을 수취하면서 전액 수익으로 인식하였으나 당해연도에 해당하는 금액은 ₩80,000이다.

① ₩30,000
② ₩90,000
③ ₩110,000
④ ₩170,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결산수정에서는 수익과 비용을 **당해연도에 귀속되는 금액**으로 맞춘다. 수정 후 수익총액은 700,000원, 비용총액은 610,000원이므로 당기순이익은 90,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당기순이익은 당해연도의 수익총액에서 비용총액을 뺀 금액이다. 발생주의에 따라 장부에 누락된 당해연도 수익·비용은 추가하고, 다음연도에 귀속되는 금액은 당해연도 수익·비용에서 제외한다.

수정 전 당기순이익: 수익 800,000원 − 비용 500,000원 = 300,000원이다. 여기에 각 결산수정이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한다.

이자수익: 당해연도에 발생한 60,000원이 장부에 누락되어 있으므로 수익을 60,000원 추가한다.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60,000원 증가한다.

급여: 당해연도에 발생한 80,000원이 장부에 누락되어 있으므로 비용을 80,000원 추가한다.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은 80,000원 감소한다.

보험료: 지급액 120,000원 중 다음연도분 90,000원은 선급보험료로 자산에 남긴다. **당해연도에 귀속되는 30,000원**(120,000원 − 90,000원)은 자산에서 보험료 비용으로 대체한다. 전액을 자산으로 기록했으므로 비용이 30,000원 증가하고 당기순이익은 그만큼 감소한다.

임대료: 받은 240,000원 중 당해연도 수익은 80,000원뿐이다. 이미 전액을 수익으로 기록했으므로 **다음연도분 160,000원**(240,000원 − 80,000원)을 수익에서 빼고 선수임대료 부채로 대체한다.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은 160,000원 감소한다.

수정 후 수익총액은 800,000원 + 60,000원 − 160,000원 = 700,000원이다. 수정 후 비용총액은 500,000원 + 80,000원 + 30,000원 = 610,000원이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은 700,000원 − 610,000원 = 90,000원이며, ②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8. (주)한국의 다음 회계자료를 이용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 20,000
◯ 감가상각비 계상액: ₩ 3,000
◯ 미지급비용 증가액: ₩ 2,000
◯ 매출채권 증가액: ₩ 5,000
◯ 선급비용 증가액: ₩ 4,000

① ₩ 12,000
② ₩ 15,000
③ ₩ 16,000
④ ₩ 24,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당기순이익을 현금 기준으로 바꾸려면 **비현금비용과 영업 관련 자산·부채의 증감**을 조정한다. 가산할 금액은 5,000원, 차감할 금액은 9,000원이므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16,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당기순이익 20,000원은 현금을 받거나 지급한 때가 아니라 수익과 비용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 이익이다. 따라서 간접법으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구하려면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여 현금 유출입과 차이가 나는 항목을 조정한다.

감가상각비 3,000원: 자산의 취득원가를 사용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배분한 금액이다. 당기순이익을 감소시켰지만 **비용 계상 시 현금 유출은 없으므로** 3,000원을 가산한다.

미지급비용 증가액 2,000원: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 중 **아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부분**이 늘어난 것이다. 당기순이익에서 차감된 비용보다 실제 현금 지급액이 적으므로 2,000원을 가산한다.

매출채권 증가액 5,000원: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 중 **아직 현금으로 회수하지 않은 부분**이 늘어난 것이다. 당기순이익에 반영된 수익보다 현금 수취액이 적으므로 5,000원을 차감한다.

선급비용 증가액 4,000원: 현금을 미리 지급했으나 **아직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은 부분**이 늘어난 것이다. 당기순이익을 줄이지 않은 현금 지출이므로 4,000원을 차감한다.

먼저 현금 지급을 수반하지 않은 비용을 조정하면 20,000 + 3,000 + 2,000 = 25,000원이다. 여기서 매출채권과 선급비용 증가액을 차감하면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25,000 − 5,000 − 4,000 = 16,000원으로, ③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9. (주)한국은 20×2년 말 장부 마감 전에 다음과 같은 오류사항을 발견하였다.
(주)한국의 오류수정에 대한 회계처리가 2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 20×2년 외상매입액 ₩10,000을 20×1년에 매입으로 회계처리하였음
◯ 20×1년 기말재고자산 ₩20,000이 과대계상되었음

① ₩10,000 감소
② ₩10,000 증가
③ ₩30,000 감소
④ ₩30,000 증가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20×2년 매입액을 바로잡으면 당기순이익이 10,000원 감소하고, 전기 말 재고자산의 과대계상을 바로잡으면 20,000원 증가한다. 두 효과를 합하면 당기순이익은 **10,000원 증가**한다.

계산 과정

매출원가는 기초재고자산에 당기매입액을 더하고 기말재고자산을 차감하여 구한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같으면 매출원가가 증가할 때 당기순이익은 감소하고, 매출원가가 감소할 때 당기순이익은 증가한다. 이 문제는 오류가 있는 장부와 비교하여 20×2년 당기순이익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묻는다.

외상매입액 10,000원: 20×2년 매입을 20×1년에 미리 기록했으므로, 오류가 있는 장부의 20×2년 당기매입액은 10,000원 과소계상되어 있다. 이를 **20×2년 매입액에 반영**하면 당기매입액과 매출원가가 각각 10,000원 증가하므로, 20×2년 당기순이익은 10,000원 감소한다.

전기 말 재고자산 20,000원: 20×1년 기말재고자산은 그대로 **20×2년 기초재고자산**이 된다. 따라서 전기 말 재고자산의 과대계상으로 20×2년 기초재고자산과 매출원가도 각각 20,000원 과대계상되어 있다. 이를 수정하면 기초재고자산과 매출원가가 각각 20,000원 감소하므로, 20×2년 당기순이익은 20,000원 증가한다.

당기순이익의 순변동: −10,000 + 20,000 = +10,000원이다. 따라서 오류수정으로 20×2년 당기순이익은 10,000원 증가하며, 이는 ②의 금액 및 증가 방향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20. 재무제표의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은 단일의 포괄손익계산서에 두 부분으로 나누어 표시할 수 있지만 당기손익 부분을 별개의 손익계산서로 표시할 수 없다.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필요에 따라 추가공시한 경우 포함)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본다.

③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④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석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①의 '당기손익 부분을 별개의 손익계산서로 표시할 수 없다'는 표현이 잘못되었다.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하나의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수도 있고, **당기손익을 별개의 손익계산서로 표시**한 뒤 포괄손익계산서를 이어서 제시할 수도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은 단일 포괄손익계산서 안에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 표시할 수 있다. 또한 **당기손익 부분을 별개의 손익계산서로 표시할 수 있다**. 두 계산서로 나누면 손익계산서를 먼저 제시하고, 그 직후 당기손익에서 시작하여 기타포괄손익을 더해 총포괄손익을 보여 주는 포괄손익계산서를 제시한다. 따라서 '표시할 수 없다'를 '표시할 수 있다'로 고쳐야 한다.

② O: 공정한 표시란 기업의 재무상태·재무성과·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와 사건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것이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공시까지 하면**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본다. 기준의 구체적인 공시사항만으로 거래의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③ O: 상계는 자산과 부채 또는 수익과 비용을 서로 차감하여 순액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각 금액을 별도로 표시하며, **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만** 상계할 수 있다. 임의로 순액만 표시하면 이용자가 자산·부채의 규모나 수익·비용의 발생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④ O: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한 재무제표는 주석에 그 준수 사실을 명시적이고 제한 없이 기재한다. 이러한 준수 표시는 **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일부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주석에 설명하더라도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기재할 수 없다.

NoteBase